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세계초일류도시 인천
		배포일자	2023년 9월 15일(금) 총 3매	
담당 부서	총 무 과	담 당 자	• 인천사랑팀장 • 담당자	전미경 ☎440-2401 안혜상 ☎440-2402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복 시장, 인천 ‘세계평화의 도시’ 로 선언
-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성료 ... 참전용사와 군인, 국민 등 1,600여 명 참여 -
- 기념행사는 전쟁의 그림자 아닌 ‘자유와 평화의 빛’ 을 찾는 과정 -

인천광역시와 대한민국 해군이 주최한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식이 15일 오전 인천항 수로와 팔미도 인근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전쟁의 그림자가 아닌 ‘자유와 평화의 빛’ 을 찾는 기념식에는 6·25전쟁 참전용사와 우리 군 장병, 유엔군 참전국 무관단, 국민 참관단 등 1,600여 명이 참여해 73년 전 오늘을 함께 기억했다.

기념행사는 함상 전승기념식과 인천상륙작전 시연, 해상사열 등으로 진행됐다.

인천 앞바다에서는 우리 군 함정 25척과 항공기 15대, 장비 7대를 비롯해 미 해군 강습상륙함 아메리카함(LHA)과 캐나다해군 호위함 밴쿠버함(FFH)이 73년 전 8개국 261척 함정과 7만 5,000여 명의 연합군이 참여한 상륙작전이 시연됐다.

특히 마지막으로 실시한 해군과 해양경찰 함정의 해상사열은 국민 참

관단으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이날 해상사열은 상륙기동부대가 주어진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했음을 축하하고 국민들에게 인천상륙작전으로 지켜낸 대한민국의 해양주권 수호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실시됐다.

인천시는 지난해 11월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를 국제적 행사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올해부터 기념행사의 기간과 규모를 대폭 확대 추진했다.

작전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이를 통해 인천을 평화외교 무대의 장으로 확대한다는 것이 인천시의 계획으로, 시는 올해 시민의 공감을 얻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기념행사에 참여한 유정복 시장은 “인류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한 영웅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또 그것을 영원히 지켜나가는 것 역시 우리의 사명” 이라면서 “그러기 위해 인천을 세계평화의 도시로 선언한다” 고 밝혔다.

이어 유 시장은 “73년 전, 전 세계 국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자유와 평화를 위한 진격했던 그날의 역사가 이미 인천이 세계평화의 도시가 됐음을 증언하고 있다” 면서 “전 세계인의 위대한 정신으로 지켜낸 기회의 땅이자 창조의 도시 인천이라면 충분히 가능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 관련 사진은 인천시 홈페이지

‘인천미디어’→ ‘포토인천’→‘포토시정’(<https://tv.incheon.go.kr>)에 게시될 예정입니다.